

“나는 가장 행복한 골퍼 결과보다 과정에 최선”



고진영이 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CC에서 열린 LPGA 투어 팔로스 버디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번 페어웨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전날 공동 12위였던 고진영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5타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시스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앞두고 인터뷰 “뉴저지에 좋은 기억”... 3연패 기대 부풀어

빼어난 실력에 팬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고진영이 스스로를 “가장 행복한 골퍼”라고 표현했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트트 파운더스컵 개막을 하루 앞둔 12일(한국시간) LPG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진영의 골프 인생은 수년째 황금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잠시 내렸던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고, 꾸준한 성적으로 이를 유지 중이다. 팬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고진영이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골퍼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고진영은 “지난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다시 1위에 오를 줄 몰랐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코치가 다가와 ‘네가 1위가 됐다’고 말해 줬다. 나는 ‘정말? 어떻게?’라고 되물었다. 벨리 코다가 잘해서 기대하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고진영은 “나는 골프장에서 가장 행복한 골퍼다. 골프장 밖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골퍼이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현재의 삶을 만족스러워했다. 고진영은 2019년과 2021년 이 대회를 정복했다. 2020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고진영은 올해 3연패에 도전하는 셈이다. 고진영은 “사람들이 내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던 안 하던 관계 없다. 나는 단지 이 코스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바람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신중하고 있다”면서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향하겠다고 전했다. 6월 초에는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US오픈이 고진영을 기다리고 있다. 큰 대회에 초점을 맞춰 일찌감치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부 선수들도 있지만, 고진영의 생각은 달랐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고진영은 “나는 지금 과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결과가 좋든, 아니든 느꼈던 좋은 면을 갖고 다음 경기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 대회 직전에 열린 솔라이트 대회 마지막 홀에서 스리퍼트를 범해 2위에 머물렀는데 당시 연습을 하지 않고 뉴욕에 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 전환을 했었다”며 “이후 이 대회 1라운드에서 7, 8개의 버디를 기록해 뉴저지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진영은 이번에도 직전 대회인 팔로스 챔피언십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자)아이들, 데뷔 4년 만에 첫 월드투어

서울 18~19일 ‘저스트 미’로 시작 해외 16개 지역 공연

그들 ‘(여자)아이들’이 데뷔 4년 만에 첫 월드투어를 돈다. 지난 2020년 당시 추진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었다. 1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6월 18~19일 서울에서 월드투어 ‘저스트 미(JUST ME) (I-DLE)’의 포문을 연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시애틀-달라스-휴스턴-시카고-뉴욕-애틀랜타-산티아고-멕시코시티-몬테레이자카르타-마닐라-도쿄-싱가포르까지 총 16개 지역에서 글로벌 팬들을 만난다. 2018년 5월 데뷔한 (여자)아이들은 당시 다른 걸그룹과 차별점으로 소연을 중심으로 한 자체 프로듀싱을 내세웠다. 소연은 (여자)아이들로 데뷔하기 전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과 여성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랩스타’로 주목 받았다. 이후 (여자)아이들은 ‘한(-)’ ‘세뇨리타(Senorita)’ ‘어-오(Uh-Oh)’ ‘라이언(LION)’ ‘오 마이 갓(Oh my god)’ ‘딤디딤디’ ‘화(火花)’까지 발표한 모든 곡을 히트시키며 글로벌 대세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네버다이(I NEVER DIE)’가 국내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아이튠즈 톱 앨범(Top Album) 차트 전 세계 24개 지역에서 1위, 케이팝 앨범(K Pop Top Album) 차트 11개 지역에서 1위를 달성했다. 타이틀곡 ‘돔보이’는 빌보드 글로벌 (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34위를 차지했다.



(여자)아이들 큐브엔터테인먼트

‘새끼손가락’ 인증시킨 이유

채널A ‘블랙’ 조주빈편

성착취 영상을 하나의 콘텐츠라 생각한 조주빈의 극악무도한 생각들이 드러난다. 13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남의 약점을 잡아 그것으로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박사방’ 범죄자 조주빈에 대해 다룬다. 조주빈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수십 개의 채팅방을 통해 이를 유포한 성범죄자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등 확실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협박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영상마다 새끼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게 했다. ‘노예’라는 단어에 최귀하는 “어떻게 노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주빈.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

이에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인 단어”라며 “실제로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이 노예는 약점이 잡혔으니 절대 신고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당신의 성적 환상을 쏟아내도 좋다’고 말했다”며 조주빈의 악랄함을 설명했다. 또 권 교수는 “법정에서 조주빈은 그 포즈에 대해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고 했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며 우월 의식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vs 네이마르 6월 서울 빅뱅



브라질, 최정예멤버로 방한 2일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이 최정예 멤버로 6월 한국과의 평가전에 나선다. 손흥민(토트넘)과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의 대결도 성사됐다. 브라질축구협회는 12일(한국시간) 네이마르를 포함한 6월 A매치 소집 명단 27명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공격수 네이마르가 선봉에 섰다. 네이마르는 A매치에서 71골을 기록한

브라질의 간판이다. 프랑스 리그1 명문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시즌 1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0골로 득점부문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과 치열한 골 경쟁이 예상된다. 호드리구, 비니시우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가브리엘 제수스(맨체스터 시티) 등 막강 공격진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카세미루(레알 마드리드), 다니 알베스(바르셀로나), 티아구 실바(첼시) 등도 이 름을 올렸다. 벤투호는 2일 브라질을 시작

으로 6일 칠레, 10일 파라과이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른다.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으로 영원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한국과 브라질의 상대전적은 6전 1승5패로 한국이 열세다. 1999년 잠실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김도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긴 게 유일하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2019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가진 평가전으로 0-3 완패를 당했다. 브라질은 카타르월드컵에서 카메룬, 스위스, 세르비아와 G조에 편성됐다. 브라질은 2일 한국을 상대한 후, 6일 일본과도 대결한다.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온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